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할,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 사랑은 원수까지도(마태 5:38~48)

## 목회자 자발적 사임 1.2% 그쳐 25년 이상 한 교회 사역은 15%

은퇴나 사망이 아닌 개인적 사유로 목회직을 내려놓는 목회자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복음주의 및 흑인 개신교 목회자들의 자발적 사임 비율은 2015년 1.3%, 2021년 1.5%, 2025년 1.2%로 지난 10년간 큰 변화 없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해당 교단 소속 교회에서 사역 중인 목회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간 재직 기간은 8년으로, 전체 목회자의 58%가 지난 10년 사이 현재 교회에 부임했다. 25년 이상 한 교회에서 사역 중인 경우는 15%에 불과했다. 절반(52%)은 현재 교회가 첫 사역지였고, 나머지는 다른 교회 경험이 있었다. 10년 이상 같은 교회가 동일 목회자와 사역을 이어온 비율은 44%였으며, 나머지 교회는 은퇴(21%), 이동(16%), 사망(7%) 등의 이유로 목회자가 바뀌었다.

사임 사유를 살펴보면, 전임 목회자의 소명 변화가 37%로 가장 많았고, 교회 내 갈등(23%), 번아웃(22%), 교회와 부적합(17%), 가족 문제(12%) 등이 뒤를 이었다. 번아웃을 이유로 든 비율은 10년 전 10%에서 올해 22%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매년 목회직을 그만두는 목회자의 약 7%는 도덕·윤리적 문제 때문이었다.

이전 교회에서 떠난 이유로는 '이끌만큼 이끌었다' (50%), 가족을 위한 변화(31%), 갈등(25%), 사역 방식 불일치(21%) 등이 있었다. 교회 측 요청으로 사임한 경우는 8%, 교단·교회 결정에 따른 재배치는 13%였다. 이전 교회에서 갈등을 겪은 목회자는 37%가 변화 제안, 35%가 평신도 리더와의 충돌, 35%가 개인적 공격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현재 교회에서도 갈등 가능성을 예상하는 목회자가 74%에 달했으며, 1년 내 실제로 갈등을 겪은 비율은 19%였다. 목회자의 88%는 갈등 징후를 주시하고, 90%는 예방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갈등 대응 교육 이수율은 2015년 75%에서 올해 66%로 감소했다.

사역 부담에 대해서는 목회자의 67%가 '24시간 대기 상태'라고 느꼈고, 57%는 업무 과중, 47%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 요구, 34%는 고립감, 19%는 비현실적 기대를 호소했다. 이는 10년 전보다 일부 완화됐지만 여전히 과반 이상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스콧 맥코넬 디렉터는 "팬데믹 시기의 긴장감은 줄었지만 목회의 어려움은 여전히 있다"며 "목회자와 가족에게는 격려, 동역자, 건강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72%의 교회는 목회자에 대한 기대치를 문서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21%의 목회자는 교회가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주중 하루 이상 휴식을 취하는 목회자는 78%였지만, 이는 2015년 85%보다 줄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또한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그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면서 아주 기를 펴고 산다. 사람들이 온통 네 자랑이요 칭찬이 자자하여 동네에서 원님 앞으로 효부상을 올리겠다고 하는구나. 세상에 시아버지 안마까지 해 주는 며느리가 너 말고 누가 또 있겠느냐" 하면서 감격해 하셨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답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도 별 말씀을 다하십시오. 부모님 잘 모시는 것은 사람의 도리인데도 글썽 요즘 우물가에 가면 동네 여자들이 저보고 속도 곱고 마음도 비단 같다고 칭찬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저희 집에 효도 구경 오겠대요." 하면서 진심으로 시아버지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은근한 목소리로, "여보, 이제 저 정도면 값을 비싸게 받을 것 같으니까 오는 장날에는 아버지를 그만 내다 팔도록 합시다." 하고 마음을 펴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세상에, 자기 아버지를 장에 팔자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하면서 자기는 시아버지 모시는 재미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편한 대로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선 자기가 죽어야 하며, 죽어야만이 예수님처럼 가장 큰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서가 말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원수일 망정 사랑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하느님의 거룩함을 닮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강길웅 신부-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야말로 바로 거룩한 삶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쉽고 즐거우면서도, 다른 한편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눈물나는 일입니다.

말대답이요, 한술 더 떠서 시아버지를 쫓아내겠다고 하니 참으로 가관이요 기가 찰 일이었습니다. 어쩌다 아들이 뭐라고 한마디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대드니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 하면서 가슴앓이만 했습니다.

하루는 장에 갔다온 아들이 자기 마누라에게, "세상에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습니다. 아, 글썽 퉁퉁하게 살찐 영감을 사겠다고 소리치고 다니는 작자가 있던데 그걸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꼭 한 가지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누라가 무릎을 치며 "맞아요. 아버지를 살찌워서 팝시다." 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시아버지 공경을 아주 극진하게 했습니다. 비싼 값에 팔려는 욕심 때문에 돈도 아끼지 않고 늘 고기와 쌀밥으로 봉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먹는 것만 가지고는 살이 안 찰 것이다 해서 시아버지의 맘을 편하게 해 드리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 바칩니다. 마실값다 오시면 안마도 해 드리고 방은 늘 따뜻하게 불을 지펴 놓곤 했습니다.

이러니 시아버지가 참으로 살판이 났습니다. 하루는 며느리에게 그랬습니다. "애야, 내가 요즘 마살다니

이를테면 나한테 잘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내 시간과 내 정력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삶의 에너지가 크게 생깁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죽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서 저주를 내리는 것이 더 쉽고 더 유쾌한(?) 일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위대한 일이 됩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더 공로가 되고 더 은혜가 됩니다. 자신이 죽어야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하느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억지로라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큰 축복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집에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것이 아주 요물이라 시아버지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밥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며 걸핏하면

###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년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518	\$285

####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5년 현재 185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예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쯤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882	\$2,555
Asset Limit	\$17,220	\$34,36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소셜연금, Extra Help,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상담 및 신청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예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6400643@gmail.com T. 714.872.9377